올 한해 군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개선 촉구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2018년도 제267회 2차 정례회 무주군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윤정훈)가 지난 11월 19일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27일까지 9일간 19개 실과원소 및 6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무주군민의 생활분야 및 현안 사업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의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편집자 주

유송열 의장 - "주민생활 더 윤택해지도록 내실있게 진행할 것"

유송열 의장은 감사총평에서 "감사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노력을 다했지만 감사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았다."고 피력했다.

유 의장은 "의원들의 공통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대한 시정과 건의가 주를 이뤘음에도 예산 심의 때나 다른 회의에서 다뤄져야할 내용이 다뤄지기도 했다"며"민원처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불만과 고충해결이 지방자치의 주목적인바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비밀보장은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감사에서 시정 요구된 사항은 담당국과장과 협의해 조치할 사항,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사항으로 나누어 적극 조치 하겠다"며 "건의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계부서에 지시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지난 7일 동안 군정전반을 감사하긴 어려웠겠지만 잘 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부분은 강력한 시정요구 하겠다"면서"어느 때보다도 짜임새 있고 심도 깊은 감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수감에 최선을 다해 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환 부의장 - "광역처리시설 매립장에 타 지역 쓰레기 들어와"

이광환 부의장은 환경위생과 감사에서 광역처리시설 매립장 위치와 진안 쓰레기도 들어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표했다.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군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인터넷상 1일 버려지는 쓰레기가 1.1kg, 연간 400kg 가까이 버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무주에서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군민들도 많고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었을 때 자원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무주군뿐만 아니라 진안군까지 좋은 환경에서 자원이 될 수 있는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심각성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음을 표명했다.

특히 영농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재자원화 할 수 없는 쓰레기도 같이 버려지고 있다. 주민들이 수거장, 집하장에 가보면 타 지역 사람들이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마을에서 버리지 않은 쓰레기도 받아야 한다. 반사필름은 별도 수거 부분도 별도로 표지판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무주군의 캐릭터 종류와 캐릭터사업이 미래로 봐서는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사업들이 지지부진해 계획이 있는가를 따졌다.

또한 군에서도 중요하게 활동하겠지만, 민간부분도 캐릭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캐릭터로 인해 우리 무주가 살아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기 바란다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캐릭터 조형물 설치가 미진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반딧불축제는 28억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군민들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 주말이 두 번 들어가야 한다. 축제기간은 군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무주군을 1년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정확하게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지 근거를 따졌다.

이 의원은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유치하자는 요구에 따라 노력을 하는 것인지, 무주에서 이뤄지는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묻고, 종목별 데이터 및 무주군에서 소요하고 있는 예산 등 서면자료로 제출해주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이 2019년도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와 수요조사는 해봤는지, 대농기계가 있고, 소농기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인지를 주문했다.

또한 반값 농기계 본 취지에 역행 된다며 지원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진행돼서는 안되며, 꼭 필요하고 농기계를 요구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기계는 이장님들과 마을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퇴비 지원에 대해 공급하는 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 무주군에 퇴비 가공하는 업체가 있는지와 무주군 관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차례 의회에 방문하고, 축분 관련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과 신규 식재의 전체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와 예산은 올라와있는 상태인지를 묻고, 농산물은 한 해를 내다볼 수 없는 가격변동 등 어려움이 있다. 무풍면만 보더라도 400ha가 넘어가고 있어 무주군의 경쟁력 있는 사과 면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따졌다.

윤정훈 의원 - "태권도 · 골프 · 스키 우수 선수 육성 필요"

윤정훈 의원은 사회복지과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 정책사항 대안들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면자료는 적시에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회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공동체 의식은 점점 열어지기 때문에 복지혜택에 목말라하고 절박해하고 있다고 지저했다.

윤 의원은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예산활동, 출장 등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다. 민선 7기 기준으로 삼아서 내년, 내후년에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도로, 참고해서 업무 수행해주기 바란다며, 행사축소폐지 계획은 33건 중에 1건만 폐지하는 것인가. 예산활동을 보니 태권도계에서 관련부처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주기 바라며, 설천면에 농어촌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태권도 국기원 이전을 위해서 협약이 맺어졌나, 추가적 설명을 요청했다.

무주군청에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할 계획,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듬에 따라 무주에 있는 인프라가 태권도, 골프, 스키인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수로 육성하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건설과 감사에서 전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판례 등을 잘 참고해서 주민들과 적극 대화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며, 삼거-덕지 구간 전복사고가 있었다. 정말 시급하게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안전재난과 감사에서 재난재해에 대해 상시 가뭄대책. 2018년도 가뭄대비 대응계획이 나와 있다. 2019년에는 가뭄대비 계획이 바뀌는 내용이 있는지와 수해로 인해 농수로가 막히는 등의 경우 어디서 복구 책임이 있는지를 지적했다.

이어 논이나 밭 비 피해로 유실되는 경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와 내년에 가뭄 예산계획이 서 있지는 않은 것인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안전재난 업무를 수행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 내역 소하천 정비 310억, 지방하천 관련 680억, 국가하천 관련 6억 8,200 예산 확보에 고생했다며, 원당천 같은 경우 상습수해위한 공사. 구천천은 하천환경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해서 안전한 공사,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환경위생과 감사에서 용역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 요즘은 인터넷활용능력만 있으면 용역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사의 창조성이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타 지역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산림녹지과 감사에서 정책을 내 놓은 것은 적극 반영을 바라며, 자료도 적시에 제출바란다며, 산림녹지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시행해주기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축산유통과 질의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자료. 약초영농조합, 천마니가 수출액이 있음. 3년간 지속적으로 했는데 국가적으로 불경기다. 수출을 잘 하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며, 유관기관이랑 잘 협의해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해연 의원 - "무주도시계획 도로 1-23호 개선사업 알고 있는지"

이해연 의원은 재무과 감사에서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 계획을 정해야 하며, 무주군의 정수대상 물품은 몇 종인가, 자동차 순환버스 차량 의회 사무과 2005년 구입, 2016년 재무과로 이관, 6만km로 현재까지 12만km 운행, 왜 이관 당시에 매각하지 않고 순환버스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또한 내구 연 한이 지났더라도 운행거리가 많지 않으면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 연 한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운행거리에도 중점을 둬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구 연 한을 지자체장이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의계약과 관련 무주군에 계약업무 행정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를 한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보게 되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품구매 관련한 질의에서 업종 변경과 빈 상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라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구입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이 의원은 건설과 감사에서 무주도시계획 도로와 관련 1-23호 개선사업을 알고 있는지, 무주 주계파출소에서 반딧불 시장 쪽으로 제방도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총 사업비와 보상비는 포함된 금액인가, 언제, 어떤 예산으로 보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토지보상은 언제, 어떤 예산으로 이뤄졌는지, 2018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안들어있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맞는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 의결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예산 집행규정에 맞는지,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인지 등 부기에도 없으며 과목에도 없는 예산집행기준에 위반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책했다.

이 의원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16명 위촉 언제 · 늘어난 이유 등을 질의했다. 특히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족수, 지방공무원법 임용 령에 의해 2/3가 참석해야 회의 정족수가 된다.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인사위원회가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직렬 위반에 대해 인사 때마다 직렬을 위반해서 인사, 직렬 관련한 보직관리 원칙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위반을 하는 것인지 따지며 직렬을 지켜서 인사를 해야 하며, 개선방법은 전문 분야를 살리고 직렬을 지켜서 인사, 보직 관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 - "목재팰릿공장, 수익형인가? 민간위탁인가?"

이해양 의원은 산림 녹지과 감사에서 목재팰릿공장 사용료 부과와 부적성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인지, 사용수익허가인지 등 관리 위탁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만남의 광장과 같은 사용수익허가는 아니다며, 목재팰릿공장은 수익형인지 아닌지, 민간위탁을 할 때 수익형으로 한 건 아니며, 군에서 직영으로 약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적자 운영으로 민간위탁을 결정 2014년 12월에 팰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추진했는지와 근거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없는지, 2018년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공유재산법을 넣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인까지 내세우며 목재팰릿공장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을 왜 추진 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사용료 산정 근거와 민간위탁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사용료 부과가 법률규정에 증인은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확실하게 대답을 요구하며, 당시에는 잘못됐고, 지금은 어떻다는 건지, 법이 언제 바꼈다는 근거법령에는 공유재산물품법이 없는데 실제 적용한 것은 이 법이다. 공유재산 물품 법에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근거가 있었나, 관리위탁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맑은물 사업소 감사에서 하수처리장 입찰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 중이 맞는지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요구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고, 폐기물 광역전처리 시설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낙찰자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민들의 민원(대차리 악취)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축산폐수 분뇨 처리현황을 받았다. 자료상 무단 방류는 없고 전부 정상처리, 믿겠음, 축산폐수와 분뇨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받음 등 세입으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행정과 감사에서 정신건강 복지 센터 인력현황은 전문요원과 정신보건 요원은 왜 채용하지 않는지, 이 분야에서 무주에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 외부에서 오기에는 인건비 문제 등 충족되지 않아 내부에서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해서 충족을 시켜야 한다.

운영실적을 보면 정신중증정신질환관리 등록자가 93명이다.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업무를 시작하고 등록돼 있는 병별로 분류하면 현황은 어떤지, 주변에 우울증이 많은데 등록인원 93명밖에 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주 의원 - "폐비닐 영농 후에 태우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박찬주 의원은 환경위생과 감사에서 영농폐자원에 대해 영농이 끝난 뒤에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고, 이는 집하장이 멀거나 없는 이유도 있으나 폐비닐을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나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한다며 깨끗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폐비닐을 영농 후에 태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군의 미세먼지 대기정보 제공과 관련 구체적으로 설명과 재난, 재해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데 미세먼지도 매우 좋지 않을 경우 (휴대폰으로) 미리 예고를 해줬으면 한다며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원봉사과 감사에서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2018년도 예산 7억여원에 신축 1, 증축 1,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축은 어딘지와 증축을 하는 동기에 대해 따졌다.

이어 철거도 있는데 철거는 안 하고 있다고 따지고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구 회관이 5년 이상 방치된 곳이 있다며 여러 번 철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아 철거를 못 해준다고 해서 방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원 마일리지에 대해 민원 단축만이 아닌 친절공무원까지 시상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며, 확대해서 민원봉사과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은영 의원 - "무주 소상공인 지원 미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문은영 의원은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대해 최소한의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에 있으며, 요구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며 한 해 평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수와 한 해 예산에 대해 주문했다.

또한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 노인 신규 참여자 비율을 높여야 하며, 일자리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정책이며 곧 노인복지인 만큼 더 다양화하고 사업 확대 계획과 평가를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은 줄일 것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역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과 취학률이 낮고, 학업 중단 율이 높아 고등교육으로 진입이 취약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에서만 교육을 하기는 한계가 있어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교육지원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산업경제과 감사에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무주군의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와 지원이 미비하고 대출정책만에 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도소상공인협회 민간조직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정책발굴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중기벤처부의 정책자금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의 노력을 부탁했다.

청년창업지원정책에 관련 군 청년창업정책과 취업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따지며 2017년도 불용액이 1,65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